

STX 엔진은 지난 1 월 12 일부터 3 일간에 걸쳐 해군 청해부대 39 진 충무공이순신함이 파병중인 아덴만 현지에 불시의 문제에 대응하고 함정의 성공적인 작전 임무수행이 가능토록 전문 기술인력을 파견, 주 추진기관 및 발전기 기관의 성능 점검과 선제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해군측으로부터 적기에 딱 맞는 서비스라는 평가와 함께 만족감과 고마움을 전달 받았다.

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 조치와 승조원 간의 동선 분리 등 기술지원에 다소 제한은 있었으나, 아덴만 현지까지 항해중에 발생된 애로사항 해결과 6 개월 가량의 성공적인 해외 파병 임무 수행을 위한 필요한 부품과 장비 일부를 지원하였으며, 여기에 더해 장기 해외 파병 함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금번 현지 파견 기술지원을 정례화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.



< 해군 해외 파병 함정 기술지원 방안 세미나 >

STX 엔진 박기문 대표이사는 24/7/365 늘 준비되어 있는 서비스, 어디든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서비스, 고객의 아픔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지 않는 서비스, 고객이 부르기 전에 항상 곁에 있는 서비스,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고객을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팀 STX 엔진의 서비스 모토로 강조하며 "초기 관계는 영업이 맞지만 재영업과 지속적인 영업은 서비스에 의해 결정된다"라고 다시 한번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팀 STX 엔진의 서비스 대비 상태와 유사 사례 발생시 대응체계 점검, 예상되는 특정 기술 문제에 대한 토론을 위해 사진에서와 같이 전사적인 서비스 세미나를 개최 다시 한번 팀 STX 엔진의 서비스 체계를 점검하였다.

또한, 이 자리에서 해외 파병함정은 국내 작전과 달리 격오지에서 단독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중요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당사에서 공급한 장비가 문제없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지 기술지원 뿐만 아니라 회사내에서도 해군 함정 기술지원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.

한편 STX 엔진은 지난해 해군 군수사령부와 2 함대, 3 함대를 차례로 방문하여 최신 기술지원과 운용자 교육 등을 통해 해군에 공급된 장비들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여 성공적인 작전 임무 수행에 기여하겠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.